

# 천호성,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확정

“전북교육 세대교체, 새로고침 반드시 이루겠다”... 차상철·이항근 후보에 “존경의 인사 드리며,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천호성 교수(56)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천호성 교수를 비롯해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파,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간 3파전이 예상된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호3번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자리에 기호1번 차상철 후보와 기호2번 이항근 후보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천 후보는 지난 17일~20일까지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 및 선출위원 투표 결과 36.98%를 획득, 1위를 차지했다. 이항근 후보는 37.80%, 차상철 후보는 25.20%를 각각 득표했다. 다만, 이항근 후보는 경선 참여 과정에서 결정된 3% 페널티가 적용됐다. 이는 이 후보가 2008년 전교조 전북지부장 재직 당시 발생한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결정된 천호성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졌지만 민



고 기다려 준 도민들과 20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12만 선출위원 및 교육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민주주의의 힘이고 진보의 실력이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의 교육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만들어 갈 능력이 있음을 도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교수는 “오늘 이 결과는 저만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화의 역사, 참교육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전북교육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셨고, 전북민주진보교육의 토대를 쌓고 성장시키는 데 노력을 해 오신 차상철, 이항근 선배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교육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이

다”며, “그 간의 선거 과정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중단없는 교육개혁’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 손잡고 동행하며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5년의 교사와, 17년의 수업연구교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알고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가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현장전문가”라며 “대학의 행정경험만을 앞세우며 초중등교육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전북교육의 세대교체, 새로고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고창출생으로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졸업, 문재인후보 교육특보와, 이리고, 전주여상, 해리고 교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기본소득국민운동 교육특소년본부 상임대표, 전주교대 교수,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대학 위기 극복에 최선”

전북대 김동원 총장,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에 취임해 올해 말까지 1년 간 임기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다.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이 회원으로 있다.

김 총장은 “임기를 통해 대학 간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공유와 협력으로 대학이 가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거점국립대학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점국립대의 현안 문제인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국립대학 학생들에 대한 무상등록금 제도 도입, ▲지방 연구중심대학 설치 등

을 협의회 차원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국가거점국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처해 있는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사회 각층과 연대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방과 공유를 통해 고등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고,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국립대학 및 거점대학의 미래를 위한 대선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원 총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학협력단장과 공대학장, 교육부 인명기관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학계 명예의 전당인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었다. 2019년 1월부터 전북대 제18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정은성 기자

## 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 강의 콘텐츠 제작·운영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평생교육 강사와 도민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ZOOM 활용 방법, 미래캠퍼스 활용 방법) 강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강의방법(ZOOM 활용 강의 방법)과 디자인 플랫폼 미래캠퍼스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 강의는 줌(ZOOM) 활용 방법 교육과 디자인 플랫폼 미래캠퍼스 활용 방법 교육이 각각 4차시(30분 이내)로 구성돼 있고, 교육 강의 영상은 24일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들을 수 있다.

김학권 진흥원장은 “제작된 강의 영상이 전북도 평생교육 강사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직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 추진과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도교육청, 소재불분명 아동 6명 모두 해외거주 확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 학생 대상, 소재 파악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던 소재불분명 아동 6명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 경찰청(수사당국)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소재불분명 아동의 소재 파악을 진행한 결과 지난 1월 20일까지 6명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명의 아동 중 5명은 출입국사실 조회 결과 모두 보호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연락처를 파악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요청, 경찰청에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의 아동은 학교측이 형제가 재학하던 학교를 추적해 조부

모의 연락처를 확보, 조부모를 통해 보호자와 대상 아동의 해외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측이 직접 보호자와 해당 아동과 국제영상통화를 했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신학기 개학 전에 해외거주로 편입된 5명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연락처를 파악해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 발표

진학대상자 총 6411명... 1지망 배정률 91.55%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21일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진학 대상자는 총 6,411명으로 작년 대비 321명이 감소했다. 이중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중대질병대상자, 다자녀 가정학생, 장애부모보양학

생 등 419명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추첨 배정했다.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1지망 배정률이 91.55%로 전년도에 비해 0.82%p 증가했고, 3지망 내 배정률도 99.13%로 전년도보다 0.24%p 늘었다.

배정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jei.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25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 입학내를 받아야 한다.

하영민 교육장은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했다”면서 “학생 수용여건을 고려한 학급당 정원을 탄력 적용해 배정민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병원형 위센터 2곳으로 확대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추가지정... 위기학생 지원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형 위(Wee) 센터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병원형 위센터 위탁교육 공모를 통해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등부권 병원형 위센터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원광대 병원형 위센터와 전북대병원 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학생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한 곳을 추가·지정하게 됐다.

병원형 위센터는 상담·진단에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위기 학생이 건 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

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의 상담·교육·치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정신건강의학적 위기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마음건강증진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전북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중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형 위센터에 입소해 최대 1개월 이내에 상담·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의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